



"기회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2. 5. 23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
과 장 : 김 중 구
사무관 : 김 희 중
전 화 : 500-1730
쪽 수 : 4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2년 5월 2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후계농업경영인 1,000명에게 800억원 추가 지원”

- 1인당 8천만원까지, 3%,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□ '12년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

- (추진 목적)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 성장을 통한 정예농업인력 확보
- (지원 대상) 선정된 지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('12년 기준 125천명) 중 영농성과가 우수한 자
- (지원 내용) 영농 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
- (지원 조건) 연 금리 3%, 5년 거치 10년 상환, 1인당 8천만원 한도

□ '12년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추진 일정

- 사업 신청 접수(5.21~6.8) ⇨ 시·군 평가 및 시·도 보고(6.15)
⇨ 시·도 심의 및 사업 대상자 확정(6.29) ⇨ 자금 지원(7.1~익년 6.30)

- 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서규용)는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규모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'12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- 금년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규모는 800억원이며, '12년 6월 8일까지 추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.

- '06년 도입된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은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단계에서 추가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,

- 영농 성과가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연 금리 3%,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자금을 1인당 8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.

- 자금의 사용 용도는 농지 구입, 하우스 설치, 축사 시설 개보수 등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모화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-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6월 8일까지 해당 시·군·구(또는 농업기술센터)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
-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(6.22) 및 영농 종사여부 점검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(6.29)하고, 7월부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.

-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농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(현지사)의 인정을 받으면 “인정취농자”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.

- 인정취농자는 일정 기술·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후계 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취농자로,

- 도지사(현지사)로부터 영농 계획을 인정받으면 경영 개시 초년도에는 2,800만엔 한도, 경영 개시 이후에는 900만엔 한도로 융자 지원받는다.

< 한·일 양국 농업 인력 비교 >

- 후계농업경영인(한국) :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,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등 평가를 거쳐 선정
 - 융자 지원 : 2억원 한도, 선정 이후(5년 경과) 8천만원
 - 연령 제한 : 만 18세 ~ 45세 미만
- 인정취농자(일본) : 일정 기술·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 농업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청년 등 취농촉진법에 의해 도지사로부터 취농계획을 인정받은 자
 - 융자 지원 : 2,800만엔 한도, 선정 이후(5년째까지) 9백만엔
 - 연령 제한 : 15세 ~ 40세 미만

- “정부에서는 농고·농대 졸업생 등을 포함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선정, 병역문제, 교육, 영농 기반 확보 등을 종합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- 농림수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영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을 시행하여,
 - 동 사업이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과 우리 농업의 미래 인력을 확보·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농림수산식품부 이준원 농어촌정책국장은

- “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우리 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정예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품목별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, 초기 창업 시 무리한 투자 대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경영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.

또한, 우수농업경영인 지원 한도 확대·농신보 보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영농 규모화·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.”며